

**미국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
사업현장 점검 및 업무 협의**

2018. 6.



자료수집과

차례

I. 여행개요	1
II. 주요업무 내용	2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Ⅱ 소장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 사업 현장 점검	2
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북한연속간행물 디지털화 사업논의	7
3.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Ⅰ 박물관 전시 관람	9
III. 출장후기 및 시사점	10

- 여행목적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NARA) 한국관련 기록물 디지털화 수집을 위한 현장실사 및 수집대상자료 현황 조사
 -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북한연속간행물 디지털화 사업 협의
 - 기록물 전시현장 탐방을 통해 수집 기록물 활용 및 홍보 관련 벤치마킹
- 여행기간: 2018. 6. 4.(월) ~ 6. 9.(토), 4박 6일
- 여행지: 미국(칼리지파크, 워싱턴 D.C)
- 여행자: 예은하(자료수집과 담당주무관)
- 방문기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I (워싱턴 D.C)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II (칼리지파크, MD)
미국 의회도서관(워싱턴 D.C)
- 여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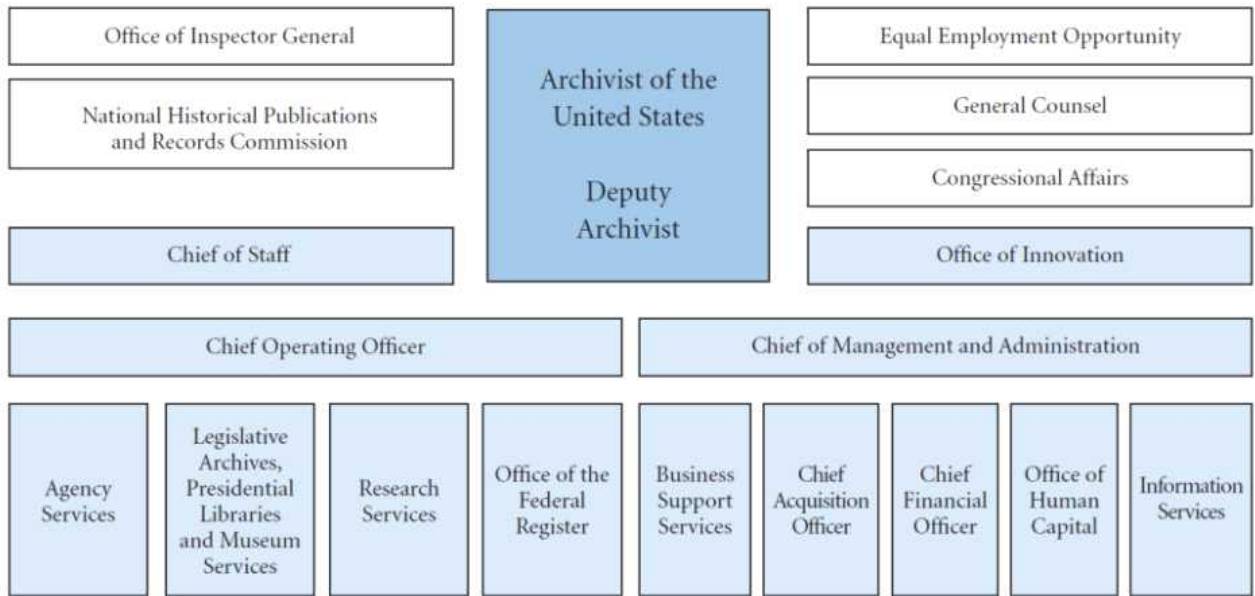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 4.(월)	인천	워싱턴DC	KE0093	10:30~ 11:20		인천출발 워싱턴D.C 도착	
6. 5.(화)		칼리지 파크	대중교통	전일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관련 세부사항 협의 ○ 기록물 수집 방법, 절차 등 현장실사 ○ 수집대상자료 현황 조사 	이흥환 (현지 자료수집원)
6. 6.(수)		칼리지 파크	대중교통	전일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문서 형태 자료 수집 방법 협의 - 한국관련 사진 MF, 동영상 자료 열람 - 자료목록 확보 및 수집방법 논의 	"
6. 7.(목)		워싱턴DC	대중교통	10:00~ 12:00 14:00~ 17:00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I 의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전시 견학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박물관 ○ 의회도서관 소장 북한연속간행물 현황 조사 	" 업무담당자
6. 8.(금)	워싱턴DC		KE0094	13:20~		워싱턴D.C 출발	
6. 9.(토)		인천		16:50		인천도착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소장 한국관련 자료 디지털화 사업 현장 점검

- 방문일시: 2018. 6. 5.(화) ~ 6. 6.(수), 9:30~16:30
- 소재지: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6001
- 면담자: 이흥환(미국 현지 사업대행자, LEEKISON Corp. 대표)
- 기관개요
 - 연혁
 - 1934년 National Archives(NA) 설립(워싱턴 D.C.)
 - 1949년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에 편입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NARS)로 기관명 변경
 - 1950년 연방기록법 제정에 따라 각지에 NARS 산하 Federal Records Centers(FRC) 9개소 설립
 - 1985년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로 독립
 - 1994년 NARA II 준공(칼리지파크), 워싱턴국립기록보존소 소장자료, 워싱턴 D.C.의 국무부 자료, 1930년대 이후 군사 관계 자료 등이 이관되어 1995년부터 자료 열람가능
 - 주요기능
 - 미국 연방정부 중요 문서 보존: 미국 연방정부가 생산한 문서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기록물(해당 연도에 생성된 기록물의 약 2~5 %) 보관 및 보존
 - 이용서비스 제공: 500만 입방피트(약 125억 페이지 상당)의 아날로그 형식자료와 795테라바이트의 전자 기록물 보유. NARA 웹사이트,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NARA 1관 및 13개의 대통령 도서관의 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기록물 공개. 서신, 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 조직현황



□ 현장실사 및 수집실무

- 현장실사 목적: NARA의 작업환경 및 기록물 수집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한국관련 자료 현황 파악 및 자료조사 방법, 디지털화 기법 등 기록물 수집 실무에 대한 이해 마련으로 향후 수집 방향 및 개선 방안 모색
- 자료이용 환경

(시설현황) 문서 자료실(2층), 지도 자료실 및 도서관(3층), 마이크로필름 및 동영상 자료실(4층), 사진 자료실(5층)로 구성

(자유로운 자료열람) 리서치카드 발급 절차 및 온라인 이용자교육만 거치면 내·외국인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자료실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 복제 가능

(철저한 자료관리) 원본의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자료실 입실 시 리서치카드 확인, 퇴실 시 소지품 확인
- 개인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외투, 모자 등을 착용했을 경우 도난 예방을 위해 자료실 내에서 벗을 수 없음
- 자료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문서 열람 및 복제가 가능하고, 동반자 일지라도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문서들은 비슷한 주제나 연도 등으로 묶여 폴더를 이루고 다수의 폴더가 한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음. 자료를 이용할 때는 폴더의 자료가 바뀌지 않도록 한 번에 하나씩 폴더를 꺼내서 이용해야 함
- 복제를 할 경우 비밀해제 확인 스티커 또는 非비밀문서 확인서를 받아야 복사나 스캔을 할 수 있음
- 자료실에서 사용한 메모지는 문서와 구별하기 위해 확인 도장을 찍어야 가지고 나갈 수 있음
- 원본자료 외부유출은 범죄이며 유출자의 사진, 이름 등을 공개함
- CCTV, 보안직원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자료수집 실무

(자료조사 및 1차 목록작성) 책자형 목록, 온라인목록, 참고정보원 등을 통한 자료조사 후 1차 대상자료 목록 작성

- 아키비스트 컬렉션: 아키비스트가 NARA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개발,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목록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이용자가 자주 찾는 주제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자료 대출신청)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대출데스크에 제출하고, 한 번에 최대 16박스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자료확인 및 2차 목록 작성) 박스 안에 자료는 수집한 당시 그대로 보관되어 있음. 한국관련 자료인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자료 상태인지 등을 확인 후 실제 디지털화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2차 목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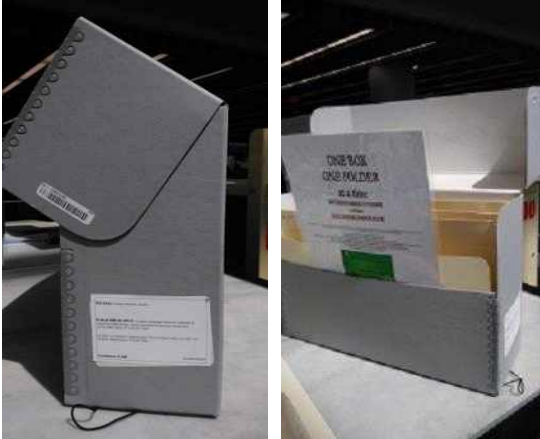

(디지털화 작업 및 최종목록 작성) 자료의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여 스캐닝 작업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스캐닝, 이미지 보정 작업 완료 후 파일번호,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최종 목록을 완성함

(DVD제작 및 발송) 문서군별로 DVD를 제작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

□ 2018년도 수집대상 문서군

- RG 529 Records of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
(태평양사령부 문서군)
 - 2018년도 신규 수집 예정
 - 태평양사령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인도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통합 전투사령부로 미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투사령부임. 미8군, 주한미군, 미7함대 등 한반도를 담당하는 사령부들이 모두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안보 및 군사 관련 문서가 대량 보관되어 있음
-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육군 작전, 전술 및 지원 기구 문서군)
 - 2013년부터 수집
 - NARA 군사 문서군 가운데 보관 문서양이 가장 많은 문서군의 하나로 미 육군의 모든 단위 부대 문서가 보관되어 있음
-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부관참모 문서군)
 - 2017년부터 수집
 - 1917~1954년간 전쟁부의 다양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군으로 전투·지원부대의 보고, 한국 내 미 군사 작전 일지, 사후전투보고, 전쟁일지 등으로 구성됨
-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E, SCAP and UNC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 2006년부터 수집
 - 주한 미 후방관구사령부(KComZ) 문서철 등 750여 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대표적인 군사 관련 문서군
-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북한 노획 문서군)
 - 2006년도부터 수집
 - 한국전 당시 미국이 노획한 북한 공문서 및 개인 수기장 등 일반 문서(1946~1953),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관련사진

	
<p>NARA소장 사진자료 사본</p>	<p>한국전쟁 관련 소장자료 목록</p>
	
<p>자료대출 신청서 양식</p>	<p>도서자료실 내 이용안내</p>
	
<p>자료박스 및 폴더</p>	<p>RG242 자료상태</p>

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북한연속간행물 디지털화 사업 논의

가. 디지털화 대상 북한연속간행물 점검 및 관련 면담

- 방문일시: 2018. 6. 7.(목), 14:00~15:00
- 장소: Library of Congress Asian reading room
- 참석자: Sonya Lee(Asian division Reference Specialist)
- 면담내용
 - 디지털화 사업 진행상황 점검: 우리관이 2017년 제출한 북한연속간행물 디지털화 사업제안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LC Business Enterprise Office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 LC 아시아부서 자체 디지털화 사업 계획: 현재 LC 내 북한 자료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아시아부서 자체에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디지털화 자료는 LC 내에서 이용시킬 목적이고 우리관과의 자료 공유는 법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함
 - 북한연속간행물 자료상태: 자료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대부분 제본되어 있어 디지털화 작업 시 주의해야 함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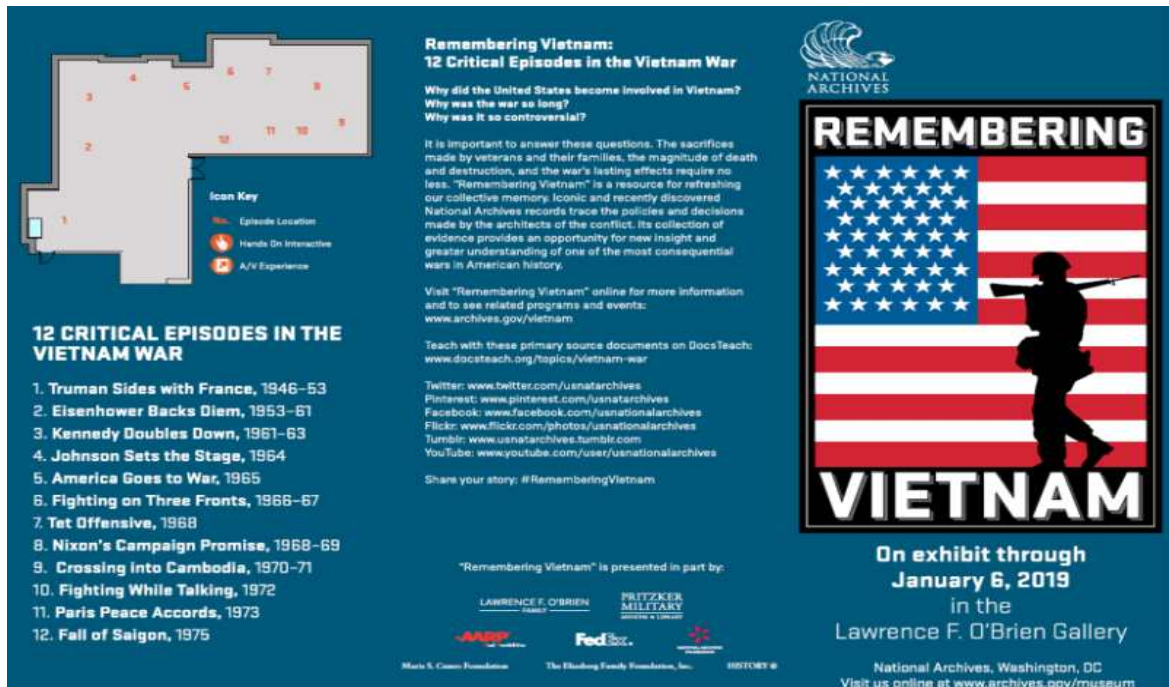
나. Third-Party Digitization Agreement 관련 논의

- 일시: 2018. 6. 7.(목), 15:30~17:00
- 장소: Library of Congress Business Enterprise Office
- 참석자: Deirdre Scott(Business Enterprise Officer)
Paul Min Soo Hahn(Section Head, Asian and Middle Eastern Division)
- 논의내용
 - 디지털화 사업 제안서 재검토: 2017년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디지털화 대상자료 수량 등 세부내용 확인
 - 향후 진행절차

기 한	진행과정 내용
201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관은 Third-Party Digitization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여 LC Business Enterprise Office에 제출 · LC Business Enterprise Office에서 제안서 최종 검토 후 OGC(Office of General Counsel, 법무자문실)로 사업 제안서 제출
20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GC에서 제안서 검토 후 우리관에 결과 통보 (OGC의 사업 제안서 검토 기간은 평균 2개월임)
201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GC의 검토내용에 대해 우리관은 30일 이내 수용 여부 통보
201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관은 Office of Contracting and Grants Management와 계약/협약 조건 협의 · LC Business Enterprise Office는 디지털화 작업 업체 선정, 작업일정 등 조정을 위해 6~8개월의 준비 기간 필요, 최소 2019년 4월 이후 실제 디지털화 작업 가능

3.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I 박물관 전시 관람

- 방문일시: 2018. 6. 7.(목), 10:00~12:00
- 소재지: 70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408
- 전시내용
 - 미국 독립 선언서, 권리 장전, 헌법 원본 전시
 - 원형 홀 내부 3대의 대형 전시대에 각각 전시되어 있음. 자료 보호를 위해 내부 조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 모든 전시구역의 사진 촬영을 금함
 - 「Remembering Vietnam」 전시



- Lawrence F. O'Brien Gallery에서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열리는 전시로 베트남 전쟁에서 중요한 12편의 에피소드와 관련된 상징적인 기록과 최근 비밀 해제된 국립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기록물을 포함한 80점 이상의 원본 문서가 전시되어 있음.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 중 하나인 베트남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는 기회임

- 문서, 사진, 동영상 전시뿐 아니라 오디오를 활용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음. 전쟁과 관련된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의 음성기록을 전화기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Records of Rights」 전시
 - David M. Rubenstein Gallery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전시로 국립 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의 소장 자료를 통해 미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정의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인 1297년 대헌장(Magna Carta) 원본이 전시되어 있음

III

출장후기 및 시사점

-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한국관련 자료 수집 방법 모색
 - NARA는 문서자료 이외에 지도, 마이크로필름,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훼손이 심한 자료는 원본 이용을 제한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이용시키고 판매도 하고 있으며 동영상의 경우 자료 복제 요청 시 외부제작업체를 통해 DVD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다양한 매체의 자료수집 필요) 우리관은 2013년에 사진자료 일부를 수집하였으나 2014년 예산감액 등으로 이후 문서 위주로 계속 수집하고 있음. 문서자료의 경우 한국학 관련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가치가 높으나 언어 등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적임. 그에 반해 시청각 자료는 비교적 이해가 용이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음.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제공한다면 해외기록물 컬렉션의 수준 향상 및 자료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증장기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필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증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수집 매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의 한국관련 자료 전체 수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해외기록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NARA의 아키비스트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분류 및 평가, 폴더 타이틀 부여, 상세설명 작성 등의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컬렉션을 구축, 자료리스트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아키비스트 컬렉션은 소장문서 소개 및 연구길잡이 역할을 함

▶ **(수집자료 목록을 활용한 컬렉션 구축)** 우리관도 수집기록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주제별, 유형별, 시대별 등의 한국관련 기록물 목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북한 노획문서군의 경우 올해 수집완료 예정으로 문서군 내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을 목록화한다면 북한학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임

○ NARA I 박물관 웹페이지에는 「Records of Rights」전시의 박물관 전시코너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온라인 전시코너는 평등권, 자유권, 개인사생활권 등의 주요권리와 관련한 시기별 중요문서 및 사진 자료 등으로 구성됨. 각 온라인 전시 자료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부과되어 있어 자료공유 및 온라인 홍보가 가능함

▶ **(온라인 전시를 통한 자료이용 및 홍보)** 시간 및 물리적 공간 등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전시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 기획이 가능함. 우리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의 형태는 이미지파일들로 이는 온라인 전시에 활용하기 적합함. 한국전쟁 및 당시 시대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는 소장 자료 홍보 및 자료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LC 소장 북한연속간행물 디지털화 사업 계속 추진
 - LC에 소장되어 있는 1940~60년대 발행 북한연속간행물은 국내에서 수집하기 힘든 자료로 북한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됨. 수집대상 자료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대부분 제본되어 있어 디지털화 작업 시 주의가 요구됨
 - (디지털화 사업절차에 따른 진행)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LC Business Enterprise Office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함. Third-Party Digitization 제안서 제출 등 사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함.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임